중관 연구, 새 지평 열 譯書 나왔다

신상환 중관학당 대표, 용수 6대 저작 최초로 全譯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승불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용수의 6대 저작을 한국의 중관 학자가 전역(全譯)했다. 한 개인이 용수의 6대 저작을 모두 번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신상환 함양 고반재 중관학당 대표(前 인도 타고르대 교수)는 최근 용수의 6대 저작을 간추린 티베트본 〈중관이취육론〉 완역본을 발간했다.

총 3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는 용수의 대표 저작인 〈중론〉을 비롯해 〈회쟁론(回諍論)〉, 〈세마론(細磨論)〉, 〈60송여리론(六十訟如理論)〉, 〈70공성론(七十空性論)〉, 〈보행왕정론(寶行王正論)〉을 담고 있다.

대중적으로 〈중론〉이외에는 접하기 어려운 저작들로 이를 한데 묶어 번역·발간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석학들의 추천사에서도 신 대표의 역경 불사가 얼마나 큰 족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 고등 티베트연구소 티베트 불교철학과 학과장 타쉬 체링은 "용수는 그의 저작들로 인도에 중관학파를 창시한 사조"라면서 "이 역서(譯書)가 한국어권 학자들의 불교의 진지한 연구에 크나큰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관학자인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도 "〈회쟁론 범문 장문 문법해설집〉 출간 당시 '눈 밝은 학인들이 군웅(群雄)처럼 나타나, 역자(譯者)의 이런 모든 작업이 무용지물이 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라고 쓴 적이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상찬했다.

각 권의 번역을 살피면 신 대표가 용수 저작을 제대로 옮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번역한 전체 티베트어 게송만 약 1,500개, 4000여 개의 방대한 주석이 이를 말해준다.

실제, 이미 산스크리트어와 한역, 영역 등이 한국어로 옮겨졌던 〈중론〉은 티베트 원문을 바탕으로 번역이 이뤄졌다. 〈회쟁론〉은 티베트 대장경인 북경판과 데게판의 판본 비교를 통해 기존 연구를 심화시켰다.



신상환 대표(사진 오른쪽)가 발간한 〈중관이취육론〉(사진 왼쪽).

티베트본 '중관이취육론' 완역
10년 역경 작업 끝에 결실맺어

"중관=중도 인식은 잘못된 것
교학, 응용·실천불교 밑거름"

〈광파론〉으로 알려진 〈세마론〉은 한역이 없어 원래 의미를 풀어 제목마저 새로 지었다. 〈60송여리론〉은 기존 한역서 간과된 중관학파의 견해를 중심으로 새로 옮겼다. 한역 자체가 없는 〈70공성론〉의 번역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역에서 용수의 저작으로 표시 않는 〈보행왕정론〉은 〈보만록〉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중관이취육론〉 완역으로 같은 저작임이 알려지게 됐다.

신 대표에 따르면 6대 저작은 크게 형이상학적·철학적으로 중관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과 도덕적 실천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뉜다. 〈중관〉과 〈회쟁론〉, 〈세미론〉, 〈60송여리론〉, 〈70공성론〉은 철학적 중관 교리 지침서이며, 〈보행왕정론〉은 〈권계왕송(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신상환 譯)〉과 더불어 도덕적 실천서라는 것이다.

신 대표는 2011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던 〈용수의 사유〉의 저자로 대표적인 중관학자다. 인도 타고르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그는 이 책을 완역하기로 마음을 품은 후 오로지 역경을 위해 귀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종림스님의 책박물관 고반재에 중관학당을 열고 오전에는 역경, 오후에는 농사와 사무를 하며, 10년 동안 작업에 매달려 그 결실을 맺었다.

그가 고집스럽게 용수 저작 번역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 대표는 "제대로 된 부처님 원음 해석이 부재한 한국불교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답했다. "교학은 뿌리"라고 강조한 그는 "응용불교는 줄기와 가지이고, 실천불교는 이에 대한 열매"라며 "제대로 된 부처의 가르침을 연구·공부하는 교학이 활성화되지 못하니 줄기나 열매가 좋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중관, 중도의 개념 오류다. 신 대표는 "〈중론〉 제24품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고찰의 18번 게송에 따르면 '연기가 곧 공성이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중도' 임을 말하고 있다"면서 "가운데 것(中)이라고 한역돼 '양견을 여읜 것' 으로 통용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중도와 중관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중론〉에서도 용수는 이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대표는 〈중관이취육론〉의 출간을 기념해 지난 6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종림 스님, 법인 스님, 박훈 변호사 등과 함께 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7월 3일 오후 7시 대구 자비선원, 7월 4일 오후 7시 부산 부산일보사 소강당, 7월 5일 오후 7시 대전 계룡문고, 7월 11일 오후 7시 광주 자비신행회에서도 각각 북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화엄석경, ICT기술로 연구·복원 필요"

최원호 문화유산기술연구소장
화엄사 화엄석경 학술대회서

3D 스캐닝·프린팅 등 ICT 바탕해
글자 판독·원형 재현 등 추진해야


구례 화엄사에서 발견된 화엄석경 중 일부.

4차 산업 기술 중 하나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해 구례 화엄사의 화엄석경을 연구·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호 문화유산융합기술연구소장(전주대 연구교수)는 6월 29일 구례 화엄사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소장은 'ICT기술을 이용한 화엄석경 복원 및 활용 방안' 에서 최신 기술을 통한 화엄석경 연구·복원 방안을 제시했다.

고대 로마 지도를 ICT 기술로 복원해 낸 사례를 예로 든 최 소장은 "기존 조사는 2차원 적 기록정보에 머물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하지만 3D 스캐닝을 통한 그래픽 등으로 입체 정보를 제작해 둔다면 구체적으로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다"고 ICT 기반 연구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1만 4242조각으로 나눠진 화엄석경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3D 디지털 기반의 입체 맞춤 조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석경의 데이터베이스, 3D 모델링·3차원 분석 통한 재현 등을 제안했다.

최 소장은 "화엄석경 원형 재현을 고려해 3D 스캐닝, 3D 프린팅 등 ICT 기반의 연구를 통한 기술을 적용해 원형에 대한 재현을 가능케 해야 한다"면서 "ICT기술을 통해 복원·재현된 화엄석경 경관 디지털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석경을 가치있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는 화엄사 창건과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화엄석경 편들에 나타난 복원의 단서와 문제점 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활용에 대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화엄사 창건의 역사적 배경' 을, 김복순 동국대 교수가 '신라 화엄종과 화엄사 화엄석경의 조성시기' 를, 조미영 원광대학교 서예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화엄석경 편들에 나타난 복원의 단서와 문제점 고찰' 을,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화엄사 석경의 복원 및 활용' 을, 오세덕 경주대 교수는 '화엄사 각황전의 복원적 관점에서 본 화엄석경 전시관(보관소)의 방향성' 이 각각 발표됐다.

한편, 화엄사의 화엄석경은 돌에 〈화엄경〉을 새긴 것으로 통일신라 때 조성됐다. 임진왜란 당시 전소된 장륙전 내부를 장엄했으며, 각황전이 건립 불사 당시 주변에서 석경 1만 4000여 편이 발견됐다.

신성민 기자

전통산사 문화유산, 지역 발전 이끈다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 향교·서원 등도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전통산사와 향교·서원 등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문화재의 가치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모집한다.

문화재청은 "전국 곳곳에서 국민 누구나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전통산사 문화재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과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문화재 야행에 대한 내년도 사업 공모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6월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소재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기획한 후 담당 시·도를 거쳐 제출하면 문화재청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정한다.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홍보 지원, 사업지도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 담당자를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해당 문화재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학회 2회 성운학술상 공모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가 제2회 성운학술상 논문을 공모한다.

논문 주제는 △경전 상에 나타난 염불신앙에 대한 고찰 △염불신앙을 통한 재가자와 출가자의 가피 사례 연구다. 가피 사례는 지장신앙, 관음신앙, 미타신앙, 주력신앙, 사경신앙, 경전독송신앙, 기도신앙도 가능하다.

대상 1명에는 500만원, 우수상 1명에는 200만원, 장려상 2명에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논문은 2019년 2월 28일까지 논문을 이메일(hanbulhak@hanmail.net)로 제출해야 한다.

수상작은 성운학술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학회지인 〈한국불교학〉의 기획논문으로 게재된다.

신성민 기자

한국스틸 고건축
특허번호 제10-1767202호
사 대웅전 | 산신각
업 일주문 | 가 든
부 건축 및 조형물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저렴한 비용!
바늘 끝같은 정교함
사무실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연락처 010-5023-5050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린 후, 머리염색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 - 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